第 26 回 全國民俗芸術競演大会 出演作品

松坡踏橋놀이

日時：1985. 9. 19～9. 20　場所：江陵市綜合競技場

서 울 特 別 市

■ 踏橋놀이 解說

다리밟기(踏橋)는 高麗때부터 正初에 자기 나이대로 다리(橋梁)를 밟으면 그 해에는 다리(脚)에 病이 나지 않고 모든 재앙을 물리칠뿐더러 福을 불러 들인다는 신앙적인 풍속에서 나온 것이다.

踏橋놀이는 매년 正月 大보름을 前後하여 3일간야간에 놀았으며 이날에 四大門을 닫지 않았던 기록으로 보아 이 놀이를 매우 소중히 여겼던것을 알 수 있다.

이 놀이에 참여했던 사람들은 宰相, 貴人에서 일반서민 구별없이 同參했으며 이때에 퉁소와 북의 장단에 선소리꾼까지 참여하여 일대 장관을 이루었다고 한다.

踏橋놀이가 성황을 이루며 혼잡을 이루게 되자 兩班層에서는 庶民과 어울리기를 꺼려하여 하루전날인 14日저녁에 다리를 밟았는데 이

것을 "兩班다리밟기"라 하였고 부녀자들은 16日 저녁에 다리를 밟았다고 한다.

서울에서 踏橋놀이를 하던 다리는 廣橋, 水標橋, 염천교를 中心해서 마포, 아현, 노들(鷺梁津), 살꽂이(箭串橋)등의 크고 작은 다리였다.

원래 踏橋놀이는 액운을 물리치는 신앙적인 풍속에서 시작되었으나 점차 그 성격이 변하여 바람드리(風納里), 몽촌(夢村) 松坡,돌마리(石村) 등 여러곳에서 놀이패가 따로 조직되면서 演戲性을 띠게 되었다.

이렇듯 一定한 格式을 갖춘 踏橋놀이가 돌마리(石村)에서 1926年을 마지막으로 하여 중단되었던것을 當時놀이에 참여했던 몇몇분의考證指導에 의하여 再演하게된 것이 서울지방의 松坡踏橋民俗놀이 이다.

■ 마당 解說

構成指導

○韓 有 星　松坡山台놀이 藝能保有者

演　　出

○李 炳 玉　京畿大學校 講師

전통문화 계승하여
민족문화 꽃피우자

다리밟기

길군악을 울리면 연희자들은 무동을 세우고 길놀이 대형으로 열을 지어 다리 있는 곳으로 가서 일년동안 다리(脚)의 무병을 기원하는 다리밟기를 시작, 왕복한다.

마당춤 놀이

길군악에 맞춰 놀이마당으로 돌아와 길놀이 대형 그대로 마당을 한바퀴 돌고 기수와 악사와 선소리가 가장자리에, 연희자들은 열 대형으로 서서 굿거리장단춤, 타령장단춤, 자진모리장단춤의 순으로 춤을 추고 무동만 원심에 들어가 굿거리, 타령, 자진모리장단 순서대로 전체 원무를 춘다.

선소리

마당춤이 절정에 이르면 선소리꾼이 가운데로 등장하고 나머지 연희자들은 가장자리로 둥글게 늘어서면 앞산타령, 뒷산타령, 놀량등으로 선소리가 이어지면 소무무동, 소무와 상좌, 집사와 별감, 곤나쟁이 양반과 노장과 왜장녀, 등롱의 배역순서대로 춤을추고 가장자리로 나간다.

뒷풀이

선소리가 끝나면 길군악을 울리면서 모닥불이 마련된 마당으로 춤을 추며 모인다. 이때, 굿거리장단(12장단) 타령장단(12장단), 자진모리장단(12장단)순으로 자유대형을 이루어 춤을 추며 타다남은 횃불, 짚불과 낡은 싸리비, 날리던 연 등의 액풀이 할 수 있는 것은 모두 불태우면서 동리사람들과 어울려 흥겹게 춤을 춘다.

빛내자 文化遺産

받들자 民族의 얼

■ 演戱者

- 선 소 리 : 김학석, 조대진, 유근오, 홍명자
  이현숙, 이정옥
- 집　　사 : 노명우, 심옥천
- 별　　감 : 함완식, 유영민
- 등　　롱 : 안병인, 김대현, 김명하, 임채현
  강차옥, 이경철
- 곤나쟁이 : 김인록, 한천복
- 무　　동 : 한국남, 이상기, 이경선, 장기호
  한국희
- 밑 무 동 : 최병기, 이근일, 이창용, 탄종원
  한창현
- 양　　반 : 한유성
- 노　　장 : 이수환
- 왜 장 녀 : 전철규
- 소　　무 : 문영란, 왕숙자, 윤효경, 김영숙
- 상　　좌 : 채지영
- 악　　사 : 호적 – 이충선, 이윤성
  징 – 곽태천
  북 – 김방현
  장고 – 김성운
  제금 – 문육지
- 기　　수 : 유홍진
- 영　　기 : 김문수, 배성준

© 1983 SLOOC All rights reserved.

© 1982 SAGOC All rights reserved.

세계는 서울로
서울은 세계로